

2021 하반기 전동대회 속기록

일시: 2021.9.10.
장소: Zoom 화상회의

비대위장: 7시 정각.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다.

비대위장: 논의안건 1 들어가도록 하겠다. 징계 동아리 복권의 건이다. 징계 동아리 다른 학생회와 다르게 주의 경고 징계 드린다. 활동심사보고서 미비나 전동대회 2회 결석 등이 해당한다. 주의 2회 경고, 경고 2회 제명이 된다. 관련 회칙을 참고. SNUWOD 고전연구회 Appey Road가 복권에 해당한다. SNUWOD부터 할 것이다. 전동대회 2회 연속 불참하였다. 대리인 구하지 못하고 동아리 대표 바빠서 그런 경우 있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리 회장 업무분담 대리인 선정, 인수인계 문제 없게 바뀌었다고 한다. 질의 있으신분?

총불교학생회: 주의 받으면?

비대위장: 주의는 별 것 없고 경고를 받으면 제명 위험이 있다. 또 질의? 징계나 SNUWOD에 대해서

비대위장: 없으면 찬반토론. 반대하는 단위?

비대위장: 없으면 표결. 다 기권해야 하는 동아리가 있어서 그 동아리만 시작하겠다. 질의?

비대위장: 나머지 동아리 다 찬성으로 표기해도 될까요?

비대위장: 두 번째 동아리로 넘어가겠다. 고전연구회에서는 활동심사보고서 외부제출 증명자료 2년 연속 미제출, 활동심사보고서로 주의 2회 누적하였다. 줄을 활용해서 공개 발제 중이고 여러가지 활동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질의 있으신분?

비대위장: 찬반 발언? 없으면 한 동아리 제외 만장일치 해도 될지.

비대위장: 세 번째 동아리 Appey Road로 넘어가겠다. Appey Road 전동대회 2회 연속 불참 때문이다. 전동대회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Appey Road 할 말 있으신지?

Appey Road: 없음.

비대위장: 찬반 있으신지? 없으면 표결.

비대위장: 두 번째 안건 가등록 동아리 승인의 건. 학내 단체 중 가등록 동아리 승인 원하는 동아리 세 곳 있음. 관련 회칙 참고. 발제자분들 들어오셔서 발제자분들 발제할 것이다. 발제하고 나가주시면 된다. 질문 받고 찬반토론 때 나가주시기 바란다. 트루스포럼부터 시작하겠다. 아직 트루스포럼 안 계셔서 Comico부터 해달라.

Comico: 가등록 동아리 신청서 보고 발제하겠다. 안녕하세요 2021년 동아리연합회 가등록 신청하게 된 서브컬처 밴드 동아리이다. 방학마다 서브컬처 합주를 진행하였다. 유튜브 영상 업로드도 하였고 코로나19 이후 2020년 초반 따로 집합금지 기준 없어서 방역수칙 준수하였으나, 후반부터 비대면 활동 전환하였다.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하면서 3월 초 신환회 진행하였고 구성원들 간 오프라인 친목 다지고자 집합금지 위배하지 않고 노는 시간 가졌다. 향후 활동 계획 2학기 합주 염두하고자 카페 내에서 곡 고르고 정기 활동 진행하고자 한다.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어떤 연습했고 곡 했는지 피드백 했다면 대면 가능 시기부터 합주할 예정이다.

비대위장: 어떤 곡 연주했는지?

Comico: 제이팝, 서브컬처 애니메이션 곡 위주로 하였다.

비대위장: 또 질의? 가등록 질의도 환영.

총불교학생회: 가등록 정등록 차이?

비대위장: 가등록 준회원 권한이 거의 없음. 육성지원금 동방에 있어서 우선권 정등록
가지는데 가등록은 중앙도양리 자격 있는지 1년 활동보고를 하면 중등이 되는 것. 혜택,
권한, 질의 있으신지? 없으면 박수로 보내드리자. **Comicoto** 퇴장.

비대위장: 찬반토론 진행. 두 가지 염두. 우리 동아리연합회 활동 목적 방식 겹치는지, 본회
목적 위배되는지 보면 좋을 거 같다. 84개 동아리 무엇이 있는지 모를 수 있음. 합주 동아리
있으나 장르 쪽으로 차이가 있어 보인다. 본회의 목적에도 크게 위배되는 부분 없어보인다.
반대의견부터 말씀해주실 분?

비대위장: 없으면 표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위? 그러면 표결 진행하겠음. 첫번째 안건
가결.

비대위장: 트루스포럼 발제 해주시기 바람.

트루스포럼: 트루스포럼 대표 이창원이다. 2017년 1학기 활동 시작하였다. 이름처럼 진리
진실 가치에 중점 맞추고 대한민국 언론 교육 학문 분야에서 왜곡된 것 나누고 찾으려 했다.
선동정치가 대한미눅ㄱ 근간 흔들다고 생각하여 출발하였다. 학내외 토론 내용 알리는 활동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향하는 가치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긍정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여기는 회원들 모이고 있다. 북한의 해방, 자유와 진리 한미동맹 지지한다. 언론의 거짓선동
탄핵사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함께 공부하고 토의하는 활동 진행중이다. 학부생
대학원생 모이는 스터디 진행 중이다. 강연과 모임 주로 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내부에
학생들과 강연보다 스터디 모임 중점적으로 진행 중이다. 학내외 보수주의 연구 활성화되고
관심 있는 학생들 자유로운 의견 개진 유의미한 목소리 전달되기 바란다. 건강하고 활발한
논의 추진 중이다. 동연 소속 되어서 이런 활동 적극적으로 다양한 단과대 학생들
모집하여서 같이 활동하기를 희망. 다른 학술매체분과랑 교류하고 싶음. 다른 소속
동아리와 차별되는 특징 말씀드리면, 보수주의 연구 중이다. 미국 보수주의에 중점 두고
있다. 대학가 없던 보수주의 학술 포럼 진행 중이다. 보수주의 컨퍼런스 개최해서 서울대에
이런 컨퍼런스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동연 소속으로서 보수주의 학술포럼 열기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인권 스터디와 학내 사진전 진행 중이다. 이런 점들이 차별점 새로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래에는 활동회원 명단이다. 보수주의 컨퍼런스 2020년 진행되었던
것이고, 일주일에 한번씩 북한 인권 스터디 유엔보고서를 가지고 스터디 진행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북한인권 사진전 진행했다.

비대위장: 끊겨서 들린다.

트루스포럼: 중도터널에서 스터디한 내용 사진전으로 전시했다. 보수주의 컨퍼런스
대외적으로 하고 학내외 스터디 열었다. 앞으로 코로나 지속되는 경우 스터디 모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다. 포럼 보수주의 강연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온라인으로 독서모임 진행할 것이다. 그 결과를 다시 북한인권 사진전 21년 10월로
예상하고 있다. 질문 해주시기 바란다.

파아란: 건전한 보수토론이라고 했는데 박근혜 탄핵 언론과 북한 조작,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조작. 이런 것이 어떻게 건전한 보수토론인가?

트루스포럼: 말씀드리자면 탄핵 사태에 대해 그 당시 진행된 언론 선동으로 진행된 부정된
인식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당시 일련의 과정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언론
상에서 나왔고 대한민국 덮쳤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 바로잡는 것 회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불투명한 정황 의혹 제기하였는데, 부정선거 정황 이에 대해 의혹 규명 요구한
내용의 대자보 작성하였다. 일방적 결론 결단 내리는 것 오해이다. 발견된 정황을 가지고
탄핵 사태에서 언론 가짜뉴스 있어서 바로잡아야 한다. 부정선거 선거시스템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 낸 것이다.

파아란: 이야기가 안 통할 것 같으니 알겠다.

비대위장: 다음 동아리 질의

마당패탈: 본 동아리 취지 알겠고 성향에 대해서 자유니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 우려되는 부분 말씀드리면 본 동아리 활동 학술 위주의 동아리 맞는지? 맞다면 학술 위주로 한다면 개인적 의견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자보 활동 전시 활동 학내 언론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는지?

트루스포럼: 그게 무슨 말인지.

마당패탈: 오해 없길 바람. 그런 문제의식 반대하거나 문제 있다고 하는 것 아님. 본인들 공유하는 의식 학내 언론을 통해 나아갈 것이고 언론 내에서 이야기 되고 감화되거나 반향되거나 언론을 뒤숭숭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함. 이 부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려됨. 어떤 스탠스 취하고 있는가?

트루스포럼: 말씀해주신 우려 지점 이해했다. 그런 학내외 논의들 활발히 진행되고 대학가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 이루어지고 다루어지는 토론 과정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저희 동아리 뿐만 아니라 학술매체 학술적 내용 다루는 동아리 이런 논의 지향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오해가 되고 왜곡되어서 큰 문제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좋은 방향 자유롭누 논의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파장에 대해서 동연 소속 가등록 동아리가 되면 더욱더 조심하고 일반 학우분들 트루스포럼 주장에 대해서 오해 사지 않도록 논조를 정확하게 오해 없이 개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조연 감사드린다.

마당패탈: 그렇다면 학내 언론에서 건전한 토론 될 수 있게 학술적 의견 제시하겠다는 것 맞는지?

트루스포럼: 맞다.

비대위장: 질문 하나 더 받고 속기 교체

골패: 본 신청하신 단위 일부 정체성 가진 학생들 교직원 그리고 학내 구성원 존재 인정하지 않고 비하하는 성명문을 내고 서울대 내에 있는 학생자치 조직 해체하고 새로운 학생회 조직해야 된다는 성명을 본적 있음. 동아리연합회 학내 구성원 자치 활성화 어울리고 편안한 생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정등록 동아리가 되어서 자치활동에 대해서 적합한 기여하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듣고 싶다.

트루스포럼: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건전한 논의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내외 구성원 인정하지 않고 비하했다고 말했는데 트루스포럼 대자보로 학내 구성원 및 단체 비하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실 없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획일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사상이고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인데 동연 소속이 되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획일적 생각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생각 모인 곳 동연이라고 생각한다. 동연 소속으로서 건강할 발전을 위한 역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골패: 다양성위원회 인권센터 있다고 생각한다. 재질의하지 않도록 하겠다.

트루스포럼: 한 마디만 하겠다. 트루스포럼 공식적으로 성소수자 혹은 다양성위원회에 대해서 학내외 구성원 있다는 것 인정하지 않거나 비하한 사실이 없다. 특별히 성소수자 그룹 안에 탈동성애자 탈트랜스젠더와 같은 분들의 목소리 있다는 것 인지하고 그런 분들 목소리 대변하는 대자보 작성하겠다. 성소수자 인권 존중한다면 탈성소수자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남.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학가라고 생각한다.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다양성위원회와 논조가 맞지 않거나 다른 동아리와 논조 같지 않다는 이유로 획일적 생각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동연이나 다양성위원회에서 제지한다면 사상에 대한 전체주의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절대로 성소수자 학우에 대한 부정이나 비하하지 않았다. 탈성소수자 존재하고 다양한 목소리 있다는 것 말하고 있다. 비판이나 비하가 아닌 다른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UBF: 회칙 상 들어있는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을 동아리연합회에서 해석한 적이 있는지?

비대위장: 예.

UBF: 전례가 어떤지.

비대위장: 특정 종교 동아리와 성소수자 동아리의 공격받음으로 인해 전동대회 미출석시에도 징계받지 않도록 하고 회원 명단 블라인드를 허용함.

UBF: 차별금지에 대한 의무를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온 적이 있는지.

비대위장: 트루스포럼에서 동소집 신청했고 새학생회와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 때문에 반려했음. 우리 안의 정등록 동아리에 대해서는 페널티 드린 적 없음.

화현회: 트루스포럼이 학술의 성격을 띤 단체라고 하셨는데 보수 기독교계 색채를 굉장히 강하게 띤 단체라고 알고 있음. 또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님이 대학생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고 외부단체에서 많은 후원도 받고 있음. 학생 단체인데 운영의 주체가 학생이 될 수 있는지 외부에서의 의견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닌지. 학생단체로서의 동아리에는 부적합하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여쭙어 보고자 함.

트루스포럼: 트루스포럼은 서울대에서 김은구대표가 시작한 것이 맞고 지금은 여러 대학과 지역에 회원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 조직을 말씀드리자면 김은구 대표는 창립자. 서울대 대표는 저. 활동에 대해서 외부의 개입을 받지 않음. 김은구 대표는 학부생 재학생은 아니고 박사과정 재학생. 후원에 대해서 회비 외에도 어떤 식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조달할지에 관해서는 회칙이 없다고 알고있음. 후원받은 사실이 있음. 그런 점들이 외부의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음. 보수기독교라고 말씀 해주셨는데 프랑스혁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기반으로 태동한 것으로 활동에 대해서 종교를 강요한다던지 하는 것은 없음. 다만 스터디 자료들이 서구 유대기독교 자료들이 많음. 미국의 보수주의를 연구하면서 사상이나 역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음.

화현회: 지금 등록하려는 동아리 트루스포럼의 운영은 김은구 대표가 활동하는 있는 단체와 운영을 분리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해도 될지?

트루스포럼: 운영은 분리. 제가 대표해서 운영. 기본적인 가치 자체는 공유하고 있음.

화현회: 동아리의 성명, 활동 등은 분리해서 나가게 될지 통합되어서 나가게 될지.

트루스포럼: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활동은 학내에서 하는 것.

화현회: 그런 의견표출에는 학외 단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학내에서 의견된 동아리 의견에 대해서만 서울대 동연 소속으로 발표되는 것 맞는지?

트루스포럼: 여태까지 많은 활동들 같은 경우가 서울대학교 학우분들이 논의하고 진행했었고 학외에 있는 분들이 동감하고 함께하신 것.

비대위장: 트루스포럼의 운영, 조직 등에 관한 질의를 해달라. 찬반토론은 따로 있다. 지금까지 안나온 질문하실 동아리 계신지?

파아란: 지금까지 여러 유명한 보수 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진행하셨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 이런 분들을 초청할 때 무엇으로 충당하는지.

트루스포럼: 저희가 섭외하는 경우는 강연요청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승낙을 하시는 경우에 강연을 와주시는 형식으로 포럼을 월 1, 2회 진행. 거액의 돈이 강연료로 사용되지 않음. 대신 저희의 가치에 동의하시고 학생들의 수요에 반응해주시는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함께해주셨음.

파아란: 뉴스타파 기사를 보면 회계자료를 보면 태극기부대가 주축인

자유민주국민연합에서 돈을 많이 후원해주셨더라구요. 이런걸 보면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트루스포럼: 여기는 적지 않았는데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 정치세력 또는 단체와 연합하여 활동하는 것 경계함. 가치 위주로 활동, 자발적인 후원의 경우 받고 있지만 저희의 목소리나 스탠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운 가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음.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됨. 저희의 뜻은 학내 회원인 학우들의 뜻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됨. 그런 우려는 안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음.

마당패탈: 질문이라기보다는 자료요청에 가까운데 트루스포럼이 여태까지 냈던 자보 한두종만 공유 가능하신지? 지금까지 나온 논의를 보아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신청서로는 부족. 자료로서 제출해주실 수 있으신지 여쭙어보고 싶다.

트루스포럼: 자료를 제출하는데에 문제는 없는데 제출하면 될지?

비대위장: 채팅방에 올려달라.

트루스포럼: 파일을 채팅방에 올렸는데 확인 가능하실지

비대위장: 확인되었다. 마당패탈에서 요청하셨는지?

마당패탈: 확인했다.

사운드림: 총학생회 해체를 주장하고 새학생회 출범을 주장한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학생회를 지향하는 것인지 동아리를 지향하는 것인지 궁금함.

트루스포럼: 트루스포럼은 동아리를 지향하고 있으며 학생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했던 적이 있으며 그것이 새학생회 운동. 지금은 동아리연합회에 소속된 동아리로 지원한 것.

비대위장: 또 질의 있으신분 계신지? 찬반토론으로 넘어가겠다.

파아란: 반대의견. 발제한 대자보를 봤을 때 사회적인 통념과 거리가 있고 이미 거짓이라고 밝혀진 것들을 대자보라고 냈고 이것이 건전한 동아리 활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등록 동아리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함.

유영환: 외부인 의견 가능한지?

비대위장: 다른 동아리 의견 개진권이 우선.

화현회: 반대의견. 대표께서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생 재학중인 김은구 대표. 대부분의 사진에 김은구 대표님이 나옴. 과연 학생사회에서 동아리를 운영하는 트루스포럼과 김은구 대표님이 얼마나 분리가 될지. 통념상 문제가 있는 단체와의 연계가 많아보임. 그러한 의견들이 흘러들어와 서울대생의 의견으로 나가는 것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되어 반대의견.

유영환: 역교 15 유영환. 트루스포럼이 베리타스포럼이었던 시절이 있었음. 김은구 대표가 예배를 주관한 적이 있었음. 학생회에서 가서 들어보고 녹취를 써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포럼주제가 한국사회와 동성애라는 주제. 여기서 한 목사님이 발언하시면서 동성애라는 것은 전세계를 무너뜨리려는 적그리스도의 음모.

인간의 인구를 줄이고 생명을 해치기 위해 바이러스를 퍼트린다. 카톨릭과 G2, G7, G20이 동성애자 조직. 그 당시에 동성기도까지 하면서 한국을 바로세워달라 등의 기도를 했음.

트루스포럼이 지금은 미국의 보수주의를 연구한다고 하지만 트루스포럼이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됨. 동아리는 고사하고 학교안에 들어와서는 안될 동아리라고 판단함.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

울톨릭: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음. 반대의견. 동아리 회칙에 보면 본회 목적에 부합해야
가등록 동아리로 인정. 그러나 타 종교단체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단체를
'단결을 강화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가 우려됨.

마당패탈: 본 동아리의 기본 스탠스가 학술 동아리다. 학내 언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토론되기를 바란다는 스탠스를 최대한 밀어보려고 하였으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안되거나 유리한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보았을 때 개인적인 정치성향과 관련없이
학술동아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함. 학술동아리라는 정체성이 의심된다면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함.

골패: 반대의견. 동아리를 대표해서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학내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학내
구성원들의 안전과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반대를
표함. 이상으로 마치겠다.

비대위장: 다른 논지의 의견 있으신지? 찬반토론을 여기서 마쳐도 괜찮을지? 표결로
들어가겠다. 찬반기로 의견 표출해주시면 된다. 트루스포럼 가등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표결)

비대위장: 마지막 꼬리로 넘어가게보겠다. 발제해달라.

꼬리: 2016년도 창설되어 가등록을 신청하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동아리 재정으로서는
유기동물보호소 방문봉사활동에 있어서 방역물품, 굿즈 제작비, 배송비 등은 회비로 충당.
수익은 전부 기부. 유기동물들에게 행복을 찾아주자는 목적 하에 활동하고 있음. 매주
주말마다 일산 소재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활동하고 있음. 가등록동아리로 신청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아리소개제나 동아리소개집에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로 해보고 싶었음.
현재는 동방이 없어서 물품들은 임원들의 자택에 보관중. 추후에 동방을 배정받을 수
있다면 그곳에 두고 싶음. 동아리방에서 동아리부원들의 소통도 제고하려고 함. 동물과
관련된 동아리는 없는 것으로 안다. 학내의 동연 소속 동아리로 들어간다면 학내구성원들의
욕구나 관심,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음. 저희가 11기. 2학기에는 12기를 뽑고
싶음. 약 145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음. 지난 1학기 어떻게 활동을 했냐면 유기동물
보호소 천사들의 보금자리에서 방문봉사활동을 했음. 묘사 견사 청소, 사료 배급, 미용지원.
목욕 지원. 등의 활동하고 있음. 참여인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정책이 바뀌고
있으니까 해당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대학생 봉사인원 참여제한 인원을 변경중. 1학기에는
4명으로 진행. 봉사활동 물품비는 모두 회비에서 차감하고 있음.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는 꼬리마켓 행사. 미술쪽에 흥미나 취미가 있으신 분들,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해온 것을 배송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한 이름으로
꼬리마켓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모든 수익금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하고 있다.
반려동물 초상화 이벤트도 진행함. 모든 수익금은 기부. 그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사회공헌봉사단의 유기동물중성화 사업중 천사들의 보금자리 측에 수술
이전 몸무게 측정, 미용보조 등의 지원봉사를 했음. 이동시에 차량에서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돕는 봉사 진행. 온라인 사진전도 진행. 카드뉴스. 유기동물, 반려동물, 동물 전반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해서 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 같음.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은 활동이 가능할 것 같음. 발표는
여기까지. 질의 있으신분 편하게 말씀달라.

사운드림: 최근에 12기까지도 리크루팅 진행하셨는데 지금까지 가등록 동아리 신청하셨는데 반려당하신건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신청하신 것인지.

꼬리: 2016년도에 인문대학 동아리로 인문대학 동방도 있었는데 중간에 후임들에게 제대로된 정보전달이 안되어서 인문대학과 큰 연결고리가 없었던 상황에서 인문대학 소속 동아리가 아니게 되었음. 가등록 동아리로 신청한 것은 이것이 처음.

사운드림: 감사하다.

비대위장: 다른 질문 있으신 동아리 계신지? 없으시면 박수로 보내드리고 찬반토론 하겠다. 찬반토론 해달라.

마당패탈: 기본적인 동아리 활동을 보았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동아리연합회내에 동물권에 대한 동아리가 없었고 봉사동아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등록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비대위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 들어가겠다. 표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표결 및 출석)

비대위장: 지금 여기 안 부른 동아리 있나 봐주세요. (부르는 중) 맞나요? 맞으시면 정등록 동아리로. 화면 공유 할게요. 여러분 거의 끝났으니 힘을 냅시다. 네 정등록 동아리 승인의 건. 여러분 다 봤으셨는데, 가등록으로 활동한게 4동아리인데 그 중 3동아리가 신청. 저희 신청 받았고, 33개 단과대 20인 확인. 공고된 날짜안에 제출도. 정등록은 과반의 출석과 2/3의 찬성으로. 그래서 논의안건 4번. 순서는 상관 말고, 준비되신 동아리가... 네 속기 교체할 게요. 현준 학생? 아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미누샤: 준비됐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에서 유일하게 생활화학 분과다룬다. 정등록 위해 pt 준비. 저희는 세가지 간단히. 번째로 이념과 비전 & 그를 위해 어떤 활동 & 왜 동연으로 오려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번. 네 먼저 이념과 비전. 생활화학이 어떤 제 3품으로서 소비자에게 다가갈 때 소비문화가 되어서 자아에 영향.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로서 일방적 선택만. 개인이 생산자 경험하면서 직접 창조하는 경험해서 자아가 수용하는 일방성에서 벗어나서 그런 기회 제공하러. 예를 들면기존 동아리 중 음악 창조하는 사운드림 문학작품 총문학과 비슷한 걸 가져가려 노력. 이러한 신념을 이념 실현하기 위해 잡은 과제는 활동영역 넓히기. 이를 위해 서울대 뿐 아니라 전국 대학 동아리와 영향력이 더 높고자... 이를 위해 습지 이상에 관심 가진 서울대인을 끌어들이려는 포부. 주요활동. 팬데믹이나 거리두기 상황에서 향기 위주로만,, 화장품은 모든 장비 제공할 수 업슨 활동 - 환경적 제약으로 화장품은 주된 활동 아니다. 주요활동은 이 네가지. 시간 지나며 정립됨. 첫번째는 메인 클래스. 일차적인 교육 기능. 기존 회원 운영진이 신입에 기초지식 전달. 현재 활동으로는 시향지, 조향원리를 답할 수 있는 콘텐츠 위주로 자 1 - 행. 내용 추려내면 중요한 지식 봤을때 이번 학기 활동에서 필요하겠다 하여 운영진이 추출해서 전달. 향기 스터디. 전체회원에서 공부하거나 향제작하는 활동. 이거같은 경우 회원 관심사가 적절하고 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지금 코어 회원 확보 안되서 이렇고, 다양한 회원 오면 그렇게. 2020년 8월 이후 프루티 - 과일향 클래스나 베이스먼트 무거운 향 스터디 지행. 그다음엔 오프 소모임. 친목이나 향기

목적으로 소모임. 비대면인만큼 그러한 것들이 동아리라는 감각이 적어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회원들이 직접 관심사 모아서 채택. 가등록 이후로 시향, 인생향수 시향, 벚꽃 비슷한
 향, 잠실 쪽 시향 그런 모임 진행.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전시활동. 1학기 말에 진행하려 했으나, 구상한대로는 진행 불가하다는 판단해서. 2학기로
 넘긴 상황. 희망하는 회원에 한해 복합 매체로 전시하는 것. 즉 글이나 그림 외에 그
 복합이나 실물이나 영상 재생, 어렵다면 qr 제공해서 관람자가 볼 수 있게 - 그런식으로 해서
 ... 잠시만요 ... 향이나 복합매체에서 공감각적 경험 제공하려. 2학기에는 중도 통로에서
 포스터에서 시향지 배부하는 방식으로 계획. 1학기 처럼 맥없이 끝나지 않길 희망.
 신청사유는 동방이랑 지원금액이 실습 동아리라 유형자산 중심이다. 지식이나 인적 자산
 중심 동아리와 다르게 탐구하려면 재료 자체가 탐구주제라 유형자산을 위한 것들과 그
 자체가 필요. 그래서 비대위장 마련한거 잘쓰고 있고, 체계 고도화되는데 저번에 40명규모,
 이번에 30명 규모로 예산 규모 확대. 1학기 기준 약 35명 정도규모에 260만원, 한하기에
 4500만원대. 그래서 활동비 부담으로 직결. 2학기 신입회원 활동비 76000원 상황.
 이런식으로 활동비 부담 가중되는거 보면서 회원들이 활동하는데 돈내는 게 정당하나
 접근이 쉽지는 않아서 지원금을 사용해보고자. 그리고 비대면 활동이라 하면, 오프 공간
 필요업무 할 수 있는데 가등록 대는 그리 나이브 생각했으나, 실문 자원 보관하다보니
 부동산 필요. 쪽 늘어놓으니 3평에 겨우 들어가서... 예비분 도 있어야 하는데 회원 집에
 나눠나눠 보관중. 또 혼합 활동 위해서도... 실존하는 단체로 상상하기 힘들다는 인터뷰.
 그래서 오프라인 활동 하려. 앞서 신입 대상 활동 준비만 4~8명의 9시간 장소대여 5~10만원
 비용든다. 그래서 절감하려 하나, 결과적으로 퀄리티가 낮아지는 결과로. 또 소규모 활동의
 경우에도 다 2만원 이상 대여비 내는 중. 장소에서 활동하려 하면 거기까지 가야하는데,
 캐비닛과 집에 재료보관하다가 가져오는데만 택시비 5~6만원. 택시 아니면 못 옮긴다
 바이알 2상자씩 들고오니. 그래서 오프 활동 위해 장소대여 부담이 증대. 가까운 편리성도
 생각. 그리고 대면활동이 되면 문제가 심각. 대면 장소가 부재. 원래 농생대 가등록으로
 활동했는데 지도교수님덕에 활동했으나 학과내 권력구조 변화로 그가 불가능. 앞으로도
 대면 활동시에 정해진 장소 없다. 결국 결 자체는 비대면 활동 지원 내용과 비슷. 이쪽이
 좀더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이비용과 노력을 매 활동에 지불해야 한다... 우너료와 도구가
 집이나 학교에 다 떨어져있는데 학교에서 오면 비효율적이고 밖에서 하니 한계가.
 요약해드리면, 저희는 자아탐색과 성장이라는 모토로 다양한 활동 제공하려 노력.
 주요경험으로 절차적으로 메인클래스 스터지 이런거, 저희 손에서만 나오지 않고 회원
 손에서 나오게 밀박 깐다. 협동 경험으로 전시와 오프 소모임도. 신청 사유 정리하면,
 예싼규모 확장 그리고 실물자원 소모 보관 필요, 오프 활동 갈증 있는데 장소 부재. 이를
 지원금과 동방으로 해결가능하다 생각. 제가 사실은 정등록 신청서가 올라오는줄 알고
 언급안했는데, 그쪽에도 궁금하시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아리 가등록 신청에서 동연
 기여 애길호 심각하게 다뤄진걸로 아는데 이도 질문 주시면 얘기하겠습니다. 질의 달라

비대위장: 박수. 질의 주실 분? ... 계신가요? ... 아그리고 그 정등록 신청서 첨부 안한거는
 개인정보 있어서 필요시 열람요청 하시면 보여드리려고 안 올림.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면
 박수류 보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잘볼가드립니다

비대위장: 찬반토론합니다.

총불교: 찬성. 내용 충실한거 같아서.

비대위장: 또 다른 의견? 내꺼 하트님, 누구신지 몰라서 혹시... 아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셔서... 아요 웃음 터지면 수습이 안되는데.

SNURFER: 찬성.

비대위장: 반대나 기권 있으신 분? 없으면 그 외에 찬반에다가 SUB 기권으로 하고
통과시키겠다. SURFER 찬성 추가하겠다.

비대위장: 숲에서 엑셀 요청. 숲에서 아까 출석할 때 없으셨음. 지금 찬성으로 해도 되는지.
숲: 넵

UBF: 잠깐 자리 비웠는데 찬성 맞는지

비대위장: 맞음. 그외엔 없는지. 없으면 AMP 발제해주시기 바란다.

AMP 로타랙트: 정동아리 승인 심사 발제 맡은 조경민이다. 앞의 동아리 열심히 해서
어설프지만 양해 바람. 동아리 개요 경영대 소속 동아리로 시작되어 현재 인권봉사분과
도앙리이다. AMP 뜻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고지도자 같이 하신 로타리 클럽 창설했는데, 이름을 새롭게 지으려고. 건국대 이대, 약대,
연대, 고대 등 지부있다. 현재 2021학년도 기준 재적 인원65명. 저번 학기 많이 와서.
임원진과 회의한 결과 이번에는 선착순 30명만. 주요활동 소개하면, 줌 행사에
신입부원ot와 월례회의. 월례회의 경우 안건지 통해 수합하고 어떤 활동했고 할지 보고하는
자리. 두번째로 정기봉사와 비정기봉사. 전자는 의료봉사나 난지도에 ??공원에서 하거나
정기적으로 봉사. 비정기 봉사의 경우 일년에 2번 열리는 행사에 나가거나 국제로타리 3640
지부 김장담그기 봉사, 연탄나르기 봉사 등. 코로나로 비정기는 줄은 상태. 3번째로 각종
이벤트. 선배들과 자리가 특별한데, 명망 있는 안정된 자리 갖춘 선배님들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에서 조찬하고 먹으며 돈도 받고... 재정지원은 주로 신입부원활동비에
로타리 지원금을. 정등록 신청서에 공개하겠지만, 매년 100만원 정도 받는 중. 자희동아리
왜 정동아리 되어야 하나ㄹ면, 어필하려는 목적인데, 타 봉사동아리와 차별점은, 학내 학우
말고도 아까말씀드린 건대나 이대같이 연계 통해 다양한 활동 가능. 이거는 코로나
이전인데, 목동에서 김장담그기 봉사를 제가 입학 전에... 왼쪽은 여름에 로타랙트
회유ㄹㄴ끼리 모여서 연수하면서 어떤 활동했는지 비전있는 이야기하는 자리. 어 그리고
저희는 재정지원 안정적이고 체계 있다. 뽕뽕한 지원금. 미누샤는 돈 더 많지만, 저희는
지원금이 안정자금로 나오기에 재정적 문제없고, 여기는 거의 실제 활동에 쓰이며, 주로
식비지원과 비품구매에. 비품은 다시 말씀. 조금더 조직적 활동. 분야 막론하고 다양한
봉사진행과 더불어 다양한 체계. 여기는 그냥 활동사진이고 이런식으로 활동했고, 저희는
특이한게 회의때마다 안거지 쓰는 중. 이런식으로 기록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해서
체계성 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동아리구심점이 부족. 아까 말씀드린
비품구매는 이러년데, 밤길 걷기 행사에서 개인 부담 비용을 동아리에서 지원을. 대신에
이런거 택배시키면 시킬 장소가 없어서 짐같은 경우에 학생회에 양해구해서 과방에 보관.
그래서 동방이 시급. 일부 동아리 짐은 제 자취방에 보관 중이고, 이 사진은 타 학교에 있다
왔는데, 그때 동방 사진. 제 기억으로는 이런 동방 여부가 컸던게 그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회원 접촉 잦으며 알아가는 단계도 많고 그러다보니 낯섬 없이 봉사를. 그런 점에서 동방이
없는게 아쉽다. 감사합니다.

비대위장: 네 발제 수고. 혹시 질문?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박수로 보내드릴. 수고하셨습니다. 네 찬반토론. 찬반 해주세요.

예 찬반토론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 우려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표결로. 아까전 표결 그대로 붙일게요. 그리고 공유할게요.아닙니다 말을 하면 실수하니 말을 적게합시다.

네 공유화면 보이시나요? 보시면 아까랑 표결 같구요. 안하신 표결이 (...나열 중...) 혹시 표결 안되시는 분들? snupo 되셨을거예요. 네 되셨어요 미동 되셨구요. 미동도 되셨어요.

총불: 됐나요?

비대위장: 네 됐습니다. 혹시 또 계신가요?

달리샤: 됐나요?

비대위장: 안됐네요. 언제부터 계셨나요?

달리샤: 방금

비대위장: 마지막으로 할텐데, 이번에도 출석 3이랑 찬반기 같이할게요. 시간 아끼고자.

영상: 혹시 됐나요?

비대위장: 언제부터?

영상: 역시 방금

비대위장: 역시 찬성. 그리고 출3은 다음찬반기에 동시에. 화면 공유 중지. 네 트랙트 해주세요.

트랩드: 잘 들리나요? 앞에 두 분이 ppt를 준비해주셨는데... 저희는 방탈출 동아리 트랩드. 저는 대표자 임혁. 저희 동아리는 19년 3월 2일 창립했고, 네 일단 그렇고. 활동하기 전에 어떤 동아리인지 설명하면, 방탈출하는 사람끼리 정보공유하고 친목다지고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이 주. 학교에 그런 커유가 없었기에 저희가 그역할 하려 만들었고, 방탈출에 참여만 하는게 아니라 제작을해서 다른 어 저희 안에 있는 팀원이나 다른 학우들이 같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중. 먼저 활동 뭐했는지 보여드리면, 상시 활동은 방탈출을 같이 갈 사람 모집. 이런식으로 같이 있는 특방에 투표 올리면 일정이 되고 갈 사람끼리 가겠다고 투표하고 그 인원끼리 실제로 갔다오는게 인증되면 1인당 3000원 지급. 그래서 저희 동아리 내에서 친목 다지고 다녀오는 걸 독려하고자 이렇게 진행. 그리고 이제 보통 학기에 1번 정도 mt를 갔다오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파티룸 빌려서 mt 장면이고, 현재 아마 2학기에는 상황이상황인지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상황 나아지면 그때 준비해보려고 생각. mt랑 비슷하게 개강했을때 간단하게 개파를 하기도.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간단히 했고, 앞으로 오프로 크게 할지 아니면 계속 온으로 할지는 추후 상황봐서 결정할 예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 제작 관련인데, 이번 1학기에는 오프로 할 수 없어서 온라인 만들어서 했고, 그 전에는 오프로 만들어서 진행. 잠시 그걸 보여드리면. 이게 19년에 진행한건데, 보시면 뭐... 저희가 진행하려 만든거라 뭐 어떤... 진행한 사람 입장이라 그렇기 ㄴ 하나, 학교 전체를 돌아다니며 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다.

그래서 아마 상황 좋아지면 오프 방탈출 제작도 진행하려고 계획 중. 이제 이 위치처럼 제작처럼 큰 이벤트 아니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로 문제 만든 분 있으면 상시로 받아서 공유하고 풀어보고 하는 가벼운 공모전 도 진행했다. 그래서 향후 활동계획은, 했던 거 그대로 유지. 그래서 저희가 왜 정동이 되어야 하나 생각하면, 일단 저희같이 방탈출을 주제로 한 동아리가 저희 뿐인게 큰 장점. 그리고 다른 학교 보면 퍼즐이나 방탈출이나 머리써서 뭔가하는 동아리가 많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보드게임 동아리는 많은걸 아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동아리는 독보적. 그래서 정동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오프 방탈출 제작에서 여러 소품 필요한데, 그걸 둘 수 있는 방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 그리고 동아리 특성이 특성인지라 보드게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시간되는 이끼리 모여서 할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 어... 네. 동아리 제 운영비는 처음에 들어올 때 등록비만 받는걸로 운영하고 있고, mt같은 큰 이벤트에만 추가로 받는 중. 나머지는 가입비로 충당 중. 이정도면 된듯. 질의응답

비대위장: 네 질의응답. 하실 동아리?

파아란: 어, 다른 단체에서 실제로 방탈출을 만든 사례가?

트랩드: 다른 단체?

파아란: 사업자 말고 이렇게 트랩드 처럼 모여서 방탈출을 제작한 다른 동아리가 있었나요?

트랩드: 오프로는 학교 안에서는 들은 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사태때 온라인으로는 여러번 학생회에서... 그래서 인기가 있다라는 건 실감할 수 있었다.

파아란: 감사합니다.

비대위장: 질문 감사. 혹시 또 질의? 계신가요?

없으시면 박수로. 찬반하고 표결로. 찬반합시다 여러분. 찬반 의견 내주세요~ 찬반기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려사항이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화면 공유하고 출석이랑 찬반기랑 동시에. 지금까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음성으로 먼저하고 채팅으로 남겨주신 분 추가로 받도록.

(표결 중)

비대위장: 네 채팅 볼게요~ 보자보자 45분... 네 됐습니다. 보시면 어... 알라성, 필화, 사커21, 모르핀 - 네 사커21 찬성이요, 스누포, 물핀, 전통무예연구회, ㄱ, -림터, 선교회, 피에스타, 퀴즈, 손말사랑, 숲이랑 자이브.... 다 없는걸로. 네 총불 해드렸어요. 바팩도 없으신가요? 집부원 4님? 아니라 박종관님. 폐회구요 여러분. 오늘이 제임기 마지막이라 후임 소개하려 합니다. 일단 박종관님 어디 계세요? 없으신가요? 저는 오늘까지 임기 마치고, 내일부터는 잠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실것이고요, 수고많으십니다. 어머니 이런거 보면 울어 어떡해. 그리고 여러분 기프티콘 잊지 마세요. 10000원 드립니다. 물론 시급 환산하면 좋은 값은 아니지만, 좋습니다... 여러분 뭐 나가보셔도... 괜찮구요. 채팅이거 캡쳐하고 나가겠다. 수고하셨습니다.

